

2018년 중국 무역동향 및 시사점

<목 차>

- I. 2018년 중국의 수출입 동향
- II. 2018년 중국 무역의 주요 특징
- III. 시사점

<요 약>

- ☐ 미중 무역분쟁, 중국경제 구조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의 수출은 2년 연속 증가세 시현
 - 품목별로는 수출 1.2위 품목인 휴대폰(8.4%)과 컴퓨터(8.7%) 등이, 지역별로는 베트남(17.2%), 인도(12.7%), 미국(11.3%)으로의 수출이 호조
- ☐ 지난해 중국무역 규모는 4.6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매년 확대되면서 대미 무역흑자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수입시장 점유율에서는 한국이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음
- ☐ 그러나, 10월까지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수출입이 11월부터 둔화 및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최근 중국 거시경제지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년 중국의 대외무역의 둔화가 우려됨
- ☐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중국 경제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
- ☐ 우리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 경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동시에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 소비 진작, 기업 경영환경 개선, 수입시장 확대 등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2018년 중국의 수출입 동향

□ 수출은 9.9% 증가한 2.5조 달러, 수입은 15.8% 증가한 2.1조 달러

- 미중 무역 분쟁, 중국경제 구조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의 수출은 2년 연속 증가세 시현

□ 무역수지는 3,5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7억 달러 감소

-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수입 증가율(15.8%)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율(9.9%)을 상회

< 최근 중국의 수출입 추이 >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23,427 (6.1)	22,766 (-2.8)	20,974 (-7.7)	22,635 (7.9)	24,874 (9.9)
수 입	19,603 (0.4)	16,821 (-14.1)	15,875 (-5.5)	18,410 (15.9)	21,356 (15.8)
수 지	3,824	5,945	5,099	4,225	3,518

출처: 중국 해관총서

* ()내는 증감률

□ 국별로는 베트남(17.2%), 인도(12.7%), 미국(11.3%) 등으로의 수출이 두 자리 수 증가 기록

- 특히, ASEAN(14.2%)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미국으로의 수출 호조는 미국의 보복관세를 우려한 밀어내기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수입은 러시아(42.7%), 브라질(31.7%) 등으로부터 광물자원, 대두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대미 수입은 0.7% 증가에 그쳤음

< 2018년 중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지역) >

(단위: 억 달러, %)

순 위	수 출			수 입		
	국가별	금액	증감률	국가별	금액	증감률
1	미국	4,784	11.3	*EU	2,735	11.7
2	*EU	4,086	9.8	*ASEAN	2,686	13.8
3	*ASEAN	3,192	14.2	한국	2,046	15.3
4	홍콩	3,021	8.2	일본	1,806	8.9
5	일본	1,471	7.2	타이완	1,776	13.9
6	한국	1,088	5.9	미국	1,551	0.7
7	베트남	839	17.2	독일	1,063	9.7
8	독일	775	9.0	호주	1,055	11.0
9	인도	767	12.7	브라질	775	31.7
10	네덜란드	729	8.5	베트남	640	27.0
11	영국	566	-0.3	말레이시아	632	16.2
12	싱가포르	492	9.2	러시아	591	42.7

출처: 중국 해관총서

*EU 및 ASEAN의 실적에는 상기 개별국가들의 실적이 포함됨

- 품목별로는 수출 1, 2위 품목인 휴대폰 및 부품(비중 7.1%)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비중 6.9%)가 각각 전년대비 8.4%, 8.7% 증가
- 수량 기준으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철강 등이 전년대비 각각 4.4%,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 >

(단위: 억 달러, %)

순위	품목	수량 기준		금액 기준		
		수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1	휴대폰 및 부품	-	-	1,756	8.4	7.1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억대	-4.4	1,720	8.7	6.9
3	의류 및 부자재	-	-	1,576	0.3	6.3
4	방직실 및 직물	-	-	1,191	8.1	4.8
5	집적회로	2,171억개	6.2	846	26.6	3.4
6	철강	6,934만톤	-8.1	606	11.2	2.4
7	자동차부품	-	-	550	10.8	2.2
8	가구 및 부품	-	-	537	7.6	2.2
9	신발류	448만톤	-0.4	469	-2.7	1.9
10	플라스틱 제품	1,312만톤	12.3	435	12.2	1.7

출처: 중국 해관총서

□ 수입 1, 2위 품목인 집적회로(비중 14.6%)와 원유(비중 11.3%)는 전년대비 각각 19.8%, 46.7% 증가하며 전체 수입을 주도

- 천연가스 수입은 수량 및 금액 모두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수량 31.9% 증가, 금액 65.3% 증가

- 대두 수입은 수량 및 금액 모두 전년대비 감소

* 수량 7.9% 감소, 금액 4.0% 감소

< 2018년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 >

(단위: 억 달러, %)

순위	품목	수량 기준		금액 기준		
		수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1	집적회로	4,176억개	10.8	3,121	19.8	14.6
2	원유	4억 6,190만톤	10.1	2,403	46.7	11.3
3	철광석 및 정광	10억 6,447만톤	-1.0	755	-1.3	3.5
4	초기형태의 플라스틱	3,284만톤	14.5	564	16.3	2.6
5	자동차 및 새시	114만톤	-8.4	507	0.0	2.4
6	천연가스	9,039만톤	31.9	385	65.3	1.8
7	대두	8,803만톤	-7.9	381	-4.0	1.8
8	미단조 동 및 동재	530만톤	12.9	375	19.6	1.8
9	자동차 부품	-	-	351	10.0	1.6
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4억 6,919만대	-7.2	329	19.3	1.5

출처: 중국 해관총서

2. 2018년 중국 무역의 주요 특징

① 중국의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 기록

□ 2017년에 4조 달러대를 3년 만에 회복한 중국의 무역규모는 2018년에도 4.6조달러로 신기록 달성

- 수출 및 수입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수입은 처음으로 2조 달러를 상회했음

* 수출: 2조 4,874억 달러, 수입: 2조 1,356억 달러

-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무역수지: 3,518억 달러(전년대비 707억 달러 감소)

- 2018년 중국의 무역 실적은 미국의 1.2배(2017년), ASEAN의 1.9배(2017년)에 달하는 규모임
* 미국: 3.9조 달러(2017), ASEAN: 2.4조 달러(2017)

< 최근 중국의 연간 무역 추이 >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역 규모	금액	41,603	43,030	39,586	36,849	41,045	46,230
	증감률	7.6	3.4	-8.0	-6.8	11.4	12.6

출처: 중국 해관총서

② 대미 수출 의존도 확대, 대미 흑자 규모 사상 최대

- 지난해에도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 전체 수출의 19.2%를 차지한 미국으로, 대미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중국의 對미국 수출 비중 : (2013) 16.7% → (2015) 18.0% → (2018) 19.2%
* 對미 최대 수출 비중 기록은 1999년의 21.53%, 그 다음은 2002년의 21.48%임

-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3,233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

- 지난해 중국의 대미 흑자 비중은 91.9%로 2011년의 130.3% 이후 다시 100%에 근접
* 對미 최대 흑자 기록은 2004년의 245.0%, 그 다음은 2003년의 230.0%임

< 최근 중국의 對미 무역흑자 추이 >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미 흑자	2,159	2,370	2,610	2,508	2,758	3,233
對미 흑자/전체흑자	83.1%	62.0%	43.9%	49.2%	65.3%	91.9%

출처: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서 재정리

- 對베트남 및 인도 수출 비중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중국 공장의 해외 이전에 따른 원부자재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에도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은 상승이 예상

※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인 의류산업은 그 원료의 상당부분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하고 있음. 게다가 아디다스, 나이키, 유니클로 등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기지를 대거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중국협력사들까지 베트남에 동반 진출하는 현상이 발생했음. 중국 최대 패딩 생산업체 보스딩(波司登)도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량 외 기타 부분은 베트남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고려 중 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전자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샤오미는 대부분의 제품을 인도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유명 가전업체 메이디(美的·Midea)도 지난해 11월 인도의 두 번째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

<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 >

순위	국가(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미국	16.7%	16.9%	18.0%	18.4%	19.0%	19.2%
2	홍콩	17.4%	15.5%	14.6%	13.7%	12.3%	12.1%
3	일본	6.8%	6.4%	6.0%	6.2%	6.1%	5.9%
4	한국	4.1%	4.3%	4.5%	4.5%	4.5%	4.4%
5	베트남	2.2%	2.7%	2.9%	2.9%	3.1%	3.4%
6	독일	3.0%	3.1%	3.0%	3.1%	3.1%	3.1%
7	인도	2.2%	2.3%	2.6%	2.8%	3.0%	3.1%

출처: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서 재정리

*순위는 2018년 기준임

③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6년 연속 1위 유지

-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6%로 2013년 이후 6년 연속 최대 수입대상국 지위 유지

* 2012년 한국 9.3%, 일본 9.8%

- 한국의 점유율은 2015년에 10.4%로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017년과 동일한 점유율을 유지 중

* (2015) 10.4% → (2016) 10.0% → (2017) 9.6% → (2018) 9.6%

- 최대 경쟁국인 일본의 점유율은 지난해 한국과의 격차가 다시 확대

* 일본 및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격차(일본 < 한국) :
(2015) 1.9%p → (2016) 0.8%p → (2017) 0.6%p → (2018) 1.1%p

□ 일본 8.5%(0.5%p ↓), 타이완 8.3%(0.1%p ↓), 미국 7.3%(1.1%p ↓), 독일 5.0%(0.3%p ↓), 호주 4.9%(0.2%p ↓) 등 주요국의 점유율이 모두 감소, 브라질(3.6%)과 베트남(3.0%) 등의 중국내 점유율은 각각 0.4%p, 0.3%p 상승

- 브라질로 부터의 채유작물(주로 대두) 수입은 전년대비 37.8% 증가한 반면, 미국산 채유작물 수입은 47.3% 감소

* 브라질산: 209억 달러(2017) → 288억 달러(2018)로 79억 달러 증가
미국산: 146억 달러(2017) → 77억 달러(2018)로 69억 달러 감소

< 주요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순위	국가(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한국	9.4%	9.7%	10.4%	10.0%	9.6%	9.6%
2	일본	8.3%	8.3%	8.5%	9.2%	9.0%	8.5%
3	타이완	8.0%	7.8%	8.5%	8.8%	8.4%	8.3%
4	미국	7.8%	8.1%	8.8%	8.5%	8.4%	7.3%
5	독일	4.8%	5.4%	5.2%	5.4%	5.3%	5.0%
6	호주	5.1%	5.0%	4.4%	4.5%	5.1%	4.9%
7	브라질	2.8%	2.6%	2.6%	2.9%	3.2%	3.6%
8	베트남	0.9%	1.0%	1.8%	2.3%	2.7%	3.0%

출처: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서 재정리

*순위는 2018년 기준임

④ 연간 무역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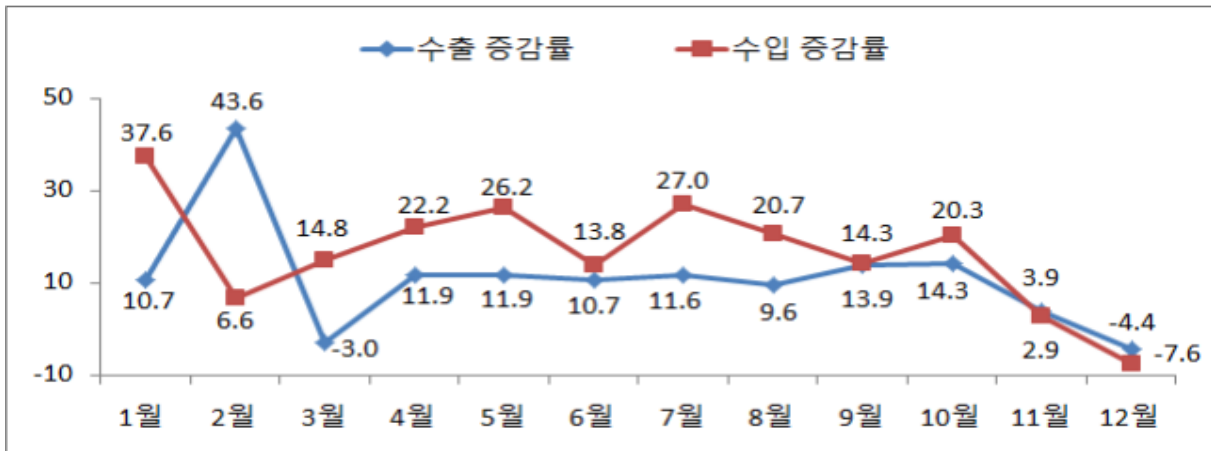
□ 10월까지의 중국의 수출입 모두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견조한 증가세

□ 그러나 11월부터는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한 자리 수로 둔화된 뒤, 12월에는 모두 마이너스 증가로 반전

- 2018년 7월부터 미중 양국의 상호 보복관세 부과가 전격 실행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이 11월부터 본격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월별 수출 및 수입 증감률 추이(2018년) >

(단위: %)



출처: 중국 해관총서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2018년 중국의 수출입은 2년 연속 4조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였으나,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등으로 11월부터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중국 거시경제 지표를 보아도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외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GDP 성장률: (2015) 6.9% → (2016) 6.7% → (2017) 6.9% → (2018) 6.6%

* 소비시장 성장률: (2015) 10.7% → (2016) 10.4% → (2017) 10.2% → (2018) 9.0%

*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 (2015) 9.8% → (2016) 7.9% → (2017) 7.2% → (2018) 5.9%

- W/B, IMF, JP모건 등 세계 유수 경제예측기관들은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2018년보다 낮은 6.1%~6.2% 수준으로 전망

< 주요 기관별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기관	세계은행	IMF	JP모건	중국과학원	중국인민대
전망치	6.2%	6.2%	6.1%	6.3%	6.3%

출처: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등

- ※ 1월 중국 현지 언론사 차이나타임스(China Times, 华夏时报)는 금년 중국의 수출입 전망을 야리산다(压力山大, 스트레스가 산처럼 쌓인다)라고 표현
- ※ 1월 중국 교통은행 련핑(连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고 예측했음. 다만 미중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수출 실적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음
- ※ 1월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금년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을 각각 6.6%, 9.4%로 예측
 * 수출/입 증감률(%): (2017) 7.9 / 15.9 → (2018) 9.9 / 15.8 → (2019E) 6.6 / 9.4

□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중국 경제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

- (인프라 강화) 금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G 상용화 등 신형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교통 등 대형 인프라 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숭안신구, 하이난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
 - (숭안신구) 2월11일, 77.6억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입찰 진행 발표
 - * 숭안신구 3대 핵심 지역 중 하나인 룡청(蓉城) 동부지역에 투자되며, 57.9억 위안은 도로 및 배수 시스템 등 건설에, 19.7억 위안은 궤도교통 건설에 투자
 - (하이난) 2030년까지 지역내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 안으로 친환경자동차 타운 설립을 완료할 계획임. 본 타운은 전시장, 판매 센터, 대형 충전소 등으로 조성되며, 하루에 1,500대 이상의 친환경자동차에 충전 및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소비진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자동차하향(汽车下乡), 가전하향(家电下乡)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세금 경감을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해 금년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시행되고 있음
 - 이번 자동차하향과 가전하향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보다는 친환경에너지차량, AI탑재 스마트가전 등 중국의 미래 산업과 연계되어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

- 농촌 지역의 농산품 유통 및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와 농촌 지역의 오프라인 산업을 연결하기 위해 농촌 및 빈곤 지역의 택배 유통망을 구축 및 강화하는 택배하향(快递下乡)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 (수입시장 개방) 중국 기업들의 중간재 수입원가를 절감하고 수입소비재 가격의 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HS 8단위 기준 706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7월 1일부터 298개 정보기술 제품의 수입세율을 추가로 인하 예정
 - 2021년말 까지 전체 통관시간을 2017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고, 2020년말 까지 컨테이너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통관 간소화도 지속 추진
- 우리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변화에 예의 주시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 소비 진작, 수입시장 확대 등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한국상품의 기술개발(R&D), 원부자재 조달, 생산, 유통, 사후관리 등 글로벌 유통 전체 프로세스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